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사분의 삼이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버트런드 러셀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사분의 삼이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